‘불교 호스피스’ 활성화 신호탄 쏘다



동국대일산병원은 10개 병상 규모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은 6월 18일 병원 11층 불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앞에서 참석 내빈들이 개소를 알리는 테이프커팅을 하는 모습.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등이 서상연 센터장(사진 왼쪽서 세번째)에게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기금을 후원한 정심행 보살 기념 현판을 보고 있다.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족실. <아미타경> 등 불교 경전도 갖춰져 있다.

東大일산불교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6월 18일 개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최초 종립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열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해원)은 6월 18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불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인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 동국대 감사 호산 스님 등 스님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 서상연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장, 장소영 화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었지만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 완화의료 시설이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번 개소식 전부터 보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출생은 의사가 책임지지만, 죽음은 이제 불교가 책임져야 한다”며 “불교에서는 시다림이라는 죽음에 관한 일체 의식이 있다. 이미 대중들을 천도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의식과 사상이 있음에도 이웃종교에 비해 많은 부분을 놓쳐왔다. 이번 호스피스 병동 개설로 인해 다시금 불교계가 대중들의 마지막 길을 보살피는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도 “꼭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생각에 감회가 깊다. 불교계와 병원이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이번에 개소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총 10개 병상으로 임종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가정의학과 교수인 서상연 완화의료센터장을

임종 · 상담 · 가족실 등으로 구성
10개 병상 규모, 향후 20병상 확대
내생 발원 · 참회 등 프로그램 진행
“불교 생사관으로 마음 고통 치유”

필두로 김달용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 전문의 2명과 수간호사 1명, 병동간호사 5명, 전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센터 직원들을 구성한 상태다. 여기에 지도법사 덕유 스님과 영적돌봄 스님들로 이뤄진 팀을 운영하고 5명의 자원봉사자도 힘을 보탠다.

일반 호스피스와 달리 불교 호스피스 답게 불화 그리기, 인등기도, 108참회염주 만들기, 가족치유 및 명상, 내생 발원 불공기도 등이 진행된다.

서상연 센터장은 “2003년부터 호스피스에 관한 활동을 진행 중 증상완화에 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느꼈다.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에게 불교의 생사관을 전하고 법사님들과 불자 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지도법사 덕유 스님도 “불교계에 호스피스 관련 조직은 많았지만 불교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은 처음이기에 향후 불교 호스피스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의 생사관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함을 덜고, 생의 마지막을 편안히 정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정심행으로 명명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센터 설립 기금을 기부한 정심행 불자를 기리기 위해서다. 정심행 불자는 이번 불교 호스피스 센터 설립 취지를 듣고, 건립 기금 대부분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개소식에서는 장소영 화가가 본인의 대표작 2점을, 자광 스님이 공기청정기 등을 병원 측에 기증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5월 9일부터 불교 종립병원서는 첫 개소 후 만반의 준비를 거쳐왔다. 가톨릭계 병원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병원 규모에 맞게 20병상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불교 호스피스는 이제 시작이다. 부처님 가르침 아래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31)961-8220

불교호스피스 병동서 완화의료 받으려면?

동국대병원서 진료중인 환자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로 진료의뢰 및 예약을 하면되며, 의료진 상담 후 병동 입원이 결정된다. 타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 동국대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면, 역시 호스피스 완화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 후 호스피스 병동 입원이 결정된다. 구비 서류는 진료의뢰서, 처방 및 수술, 항암 등 치료기록과 자료다. 연명의료 계획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 입원이 제한 될 수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일반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암환자는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 5%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상급병실료나 특진비 등 비급여 항목도 있으며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